

한국 중년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 -여성적·남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최효일

조혜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와, 자신의 일반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바람직하지 않은 자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년 여성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과 있을 때, 그리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여성 긍정적 특성을 보편적으로 드러내었으나, 남성 긍정적 특성은 자녀와 친구에게, 그리고 친구모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리고 남녀 대중모임에서 적게 표현하였다. 한편 일반적 자아는 남성 긍정적 특성과 여성 긍정적 특성을 모두 지적했지만, 이상적 자아로는 남성 긍정적 특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년여성들이 남성 긍정적 특성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관계와 역할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아란 개인이 갖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질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성물이다. 자아 구성에는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타인들이 중요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일찍이 James가 자아에는 물질적 자아와 영적 자아, 순수 자아와 함께 사회적 자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 만큼 많은 사회적 자아를 갖는다고 주장한 이래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자아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다. Cooley는 사람들은 중요한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구성한다는 체경자아(looking-glass self)를 주장하면서,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상상되는 자신의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상상된 판단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아란 타인의 관점을 단순히 수용하는 체경자아 이상의 것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표상과 담당하는 역할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행동에 반영될 뿐 아니라 행동을 매개하고 조절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체이다 (Rosenberg, 1997; Ashmore & Ogilvie, 1992; Callero, 1985; Wiley & Alexander, 1987).

Ashmore(1990)는 우리는 특정인과 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지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부호화하여 표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표상은 명제적 언어적인 부호(나는 유능해)와, 정서적인 부호(편안하다), 행동적인 부호(강하게 행동한다) 등 다중적인 부호로 저장된다고 본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다중적인 내적 표상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관계 자아(self-with-other)표

상이다. 사람들은 특정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표상을 구성할 뿐 아니라, 비슷한 것끼리 묶고, 조직하여 보다 복잡한 인지/정서적인 자아 표상구조로 통합시키고 분화시킨다. 각 개인의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 표상의 정확한 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범주적이고, 위계적이라는 것이 밝혀져 왔다 (Fisk & Taylor, 1991; Ashmore & Ogilvie, 1992).

또한 자기개념은 역할 정체감(role identities)과 떼어 놓을 수 없다. Weigert(1983)은 자아란 개인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 조형되는 지식과 정서를 포함하는 과정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Turner(1978)는 개인은 역할과 연결되고,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Wiley와 Alexander(1987)는 같은 맥락에서 역할을 성향적 도식으로 생각했고, 특성 차원이 특정 역할과 연결되어 행동을 주도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자아개념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성물인 동시에 다중적인 표상으로 본다면(Markus, 1983; Fiske & Taylor, 1991), 어떤 한 순간의 개인의 행동과 반응에는 다중적인 자아 표상중 활성화된 일부가 영향을 미친다. Markus와 Cross(1990)에 따르면, 작동중인 자아개념은 개인 내적 행동의 조형과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타인과의 관계가 자아 구성에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주장되어 왔다.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서양은 자아를 타인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개인주의 문화로, 동양은 인간을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는 집단주의 문화로 규정해 왔다(Triandis, 1989).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은 자신보다는 상대방과의 조화추구 또는 상대방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개인을 타인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생활에서의 타인의 영향을 강조한다. 한편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 강한 내집단 정체감을 갖게 되며,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속에 존재하고 이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는 각자가 관계에 내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유지된다고 본다(조궁호, 1995).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가지고(Miller, 1984),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타인과의 관심 및 배려에서 찾으며, 관계 속의 조화의 추구가 사회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해석 양식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과는 분리된 개별적 단위로서의 독립적 자아개념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의 개념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조궁호, 1995),

자아의 구성에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여성주의 이론들에서 강조되어 왔다. 많은 여성주의 이론들은 여성의 삶에서 관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Chodorow, 1987; Dinnerstein, 1976; Gilligan, 1982; Miller, 1986). 이들 이론가들은 관계가 여성의 삶에서 중심을 이루고 힘을 가지나, 대부분은 인식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Miller(1986)는 여성 심리의 중요 특징은 끊임없이 타인의 존재나 타인의 기대를 자각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자기 가치나 자존심은 관계의 일부이며 관계를 돌보는 것에 근거한다.

Markus 와 Cross(1990)는 여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관계 경험의 양상이 남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아체계의 유형이 남성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Chodorow(1978)와 Erikson(1968), Gilligan(1982)등은 여성은 "집합주의적" "사회중심적" "친교적" "연결적"인 자아 도식(self schema)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개인주의적, 자아중심적, 분리적인 자아 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연결주의적 자아도식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연결적 자기 도식은 특히 타인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타인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지식이 세련되어 있다. 연결적 자기 도식의 요소는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은 자아와 함께 표상되고, 사람들이 자아에 대해 생각할 때 타인들 역시 함께 인출된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런 타인들을 내면화된 대상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온 중년 여성들은 어떤 자아 표상을 가지고 있는가? 성별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에서,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사적 영역, 곧 가족에 할당하고, 남성의 일차적 역할은 공적 영역에 할당하는 이분법이 당연시되어 왔다. Parsons(1955)는 성별 분업체계에서는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관장하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하나의 공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히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집단주의적, 관계중심적 사고가 강한 우리의 현실에서,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삶은 주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 한정되었고, 여성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 및 딸의 역할, 친구의 역할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중년기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협공받는 세대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이 역할은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년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유교적 문화의 남존여비의 사상과 효의 전통적 사고가 남아있는 가족구조에서 며느리와 딸, 부모의 역할은 각기 다르다(최효일, 1998). 따라서 중년여성에게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할들은 전혀 다른 유형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Jung(1933)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중년기 위기를 겪으면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 여성들은 남성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남성들은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남자는 유친성과 양육동기가, 여자는 공격성과 자기 중심성, 권위적 동기가 강해진다고 주장해 왔다(Gutman, 1977). 그러나 이러한 성격

특성의 변화도 개인이 어떤 타인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드러날 수 있다.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으나, 연구방법상의 문제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Ashmore와 Ogilvie(1992)는 다중적 자아이론의 입장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기지각을 알아본 결과, 각 개인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자아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남녀 대학생들이(70%) 타인들과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유형화된 자아감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여성들이 개인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관계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자아의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관계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또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상대방의 기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여성들의 다양한 자아와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가족이라고 가정되었고, 따라서 남편과 자녀, 부모, 그리고 덧붙여 친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도되었다.

방 법

피험자

35세-58세까지의 기혼여성 74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35-39세: 20명(27.03%), 40-44세: 16명(21.62%), 45세-49세: 25명(33.78%), 50세-54세: 9명(12.16%), 55세이상: 4명(5.41%)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 8명(10.81%), 고졸 24명(32.43%), 대졸이 42명(56.76%)이었다.

도구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2원 행렬표를 이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Ashmore & Ogilvie, 1992; Rosenberg, 1997). 2원 행렬의 사용은 개인의 특정한 성격특성이 여러 유의미한 타인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물을 수 있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가 특정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2원 행렬표(matrix)로 구성된 질문지가 준비되었다. 이 질문지의 열은 특정 대상(target)과 함께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편과 있을 때, 자녀와 있을 때, 어머니와 있을 때, 아버지와 있을 때, 시어머니와 있을 때, 시아버지와 있을 때, 친한 친구들(1,2,3)과 있을 때의 자신이 어떠한지를 묻고, 다음에는 남녀의 대중 모임에서, 여성만의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자신이 어떤지를 물었으며, 자신의 어릴때의 모습, 일반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 싫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물었고,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했으며, 현재는 어떠한지를 물었다. 전체 열의 항목은 20개였다. 행에는 자신의 특성(feature)을 묘사하는 것인지를 묻는 형용사들이 기록되었다. 형용사는 Williams와 Best(1982)의 형용사 목록에서 남성형 긍정적인 단어 3개(적극적인, 자신있는 독립적인)와 남성형 부정적 단어 3개(과장된, 거친, 이기적인), 여성형 긍정적 단어 3개(민감한, 부드러운, 동정적인)와 여성형 부정적 단어 3개(까다로운, 우는 소리하는, 힘없는)가 선택되었고, 능력차원의 형용사인 '강한', '약한'이 첨가되었고, '남성적인', '여성적인'이 덧붙여져 모두 16개의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20개의 대상항목이 16개의 특성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O, X로 총 320개의 반응을 하여야 했다.

각 피험자의 반응은 O에는 1점, X에는 0점을 주어 항목별로 처리되었고, 남성-긍정적 특성과 여성-긍정적 특성, 남성-부정적 특성과 여성-부정적 특성으로 묶여 점수화되어 비교되었다.

절차

중년 여성들의 모임에서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반응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아 질문지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험자들에게는 대학생들이 1:1로 질문지 작성을 도왔다. 질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결 과

1.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비교

표 1.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의 특성평균과 표준편차()

...와 함께 있을 때	남성긍정	여성긍정	남성부정	여성부정
남편	1.68 (1.01)	1.69 (0.92)	0.51 (0.88)	0.55 (0.78)
자녀	2.36 (0.72)	1.79 (0.85)	0.32 (0.56)	0.47 (0.65)
어머니	1.77 (1.13)	1.67 (0.83)	0.37 (0.73)	0.57 (0.88)
아버지	1.32 (1.22)	1.52 (0.91)	0.32 (0.71)	0.40 (0.79)
시어머니	1.38 (1.22)	1.80 (0.92)	0.43 (0.81)	0.30 (0.59)
시아버지	0.92 (1.01)	1.46 (0.92)	0.25 (0.60)	0.33 (0.63)
친구	2.27 (0.88)	1.59 (0.84)	0.35 (0.69)	0.27 (0.58)

중년여성들은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에 주로 부정적인 특성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내었다. 특히 여성 긍정적인 특성은 타인이 누군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그러나 남성 긍정적인 특성은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달리 경험되었다. 즉 자녀와 있을 때와, 친한 친구와 있을 때에는 남성-긍정적인 특성들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시아버지와 있을 때에는 가장 적게 경험하였다.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를 비교해 보면, 남성 긍정적인 특성은 남편과 자녀에게 상관이 있지만

($r=.32, p<.001$), 남편보다는 자녀에게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내고 있었고($t=-5.89, p<.0001$)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상관되게 경험하지만($r=.44, p<.01$), 어머니에게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내었다($t=2.38, p<.05$).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남성 긍정적 특성 역시 상관이 있었으나($r=.43, p<.001$), 친정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표현되었고($t=2.20, p<.05$).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는 남성 긍정적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상관이 높게 표현되었다($r=.686, p<.001$). 한편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남편에게 보다는 유의미하게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t=-4.29, p<.001$).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마음 편한 상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경험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 긍정적인 특성은 아버지와 시아버지에게는 상관을 보이고($r=.52, p<.001$), 남편과 친구에게($r=.38, p<.001$) 그리고 자녀와 친구에게($r=.29, p<.05$) 상관을 보이며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항목의 반응률을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중년여성들은 자녀와 있을 때에는 매우 적극적이며, 자신있고, 강한 특성을 드러내었으며,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적극적이고, 자신있었다.

표 2. 유의미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지각 (%)

...와 함께 적극적인 자신있는	강한	부드러운	있을 때	
남편	55.41	67.51	47.30	74.32
자녀	89.86	81.16	84.06	78.26
어머니	54.41	64.71	42.65	76.53
아버지	40.32	45.16	22.58	66.13
시어머니	41.38	44.83	36.21	72.41
시아버지	28.89	26.67	15.56	73.33
친구	87.83	85.14	58.10	89.19

(%)

...와 함께 동정적인	민감한	까다로운	여성적인	
있을 때				
남편	39.19	58.11	21.62	74.32
자녀	42.03	65.22	39.13	56.52
어머니	58.82	41.18	27.94	63.24
아버지	40.32	51.61	14.52	62.90
시어머니	43.10	68.97	13.79	77.59
시아버지	33.33	51.11	11.11	80.00
친구	39.19	39.19	10.81	72.97

그러나 강한 특성은 친구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많이 표현하지만, 자녀와 있을 때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시아버지와 있을 때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없고, 강하지 못하였으며, 여성적인 경우가 많았다. 시아버지 다음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며, 자신 없는 반응을 보인 대상은 시어머니와 아버지에게였고, 남편과 어머니에게는 비슷하게 적극성과 강함, 자신감을 보였다. 부드러운 특성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내는 특성이었으며, '여성적인'에 대한 반응도 모두에게 일관성있게 나타났으나, 자녀에게서는 가장 적은 비율로 표현되었다. 동정적인 반응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민감한 반응은 자녀와 시어머니에게, 까다로운 반응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표현하였다.

이중 '여성적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여성적인'과 상관되는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여성적인'은 여성 긍정적인 특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r=.36, p<.01$), 여성 부정적인 특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r=-.32, p<.01$), 남성 부정적인 특성과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r=-.25, p<.05$), 남성 긍정적인 특성과는 상관이 없었다($r=.08, p>.05$). 즉 여성들은 '여성적인'이라고 자신을 묘사할 때 여성 긍정적인 특성을 묶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특성은 내포하지 않는 개념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남녀 모임에서의 자아지각

표 3. 모임에서의 자아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성긍정	여성긍정	남성부정	여성부정
남녀모임	1.33 (1.03)	1.51 (0.84)	0.26 (0.50)	0.33 (0.60)
여성모임	1.77 (1.07)	1.37 (0.94)	0.34 (0.67)	0.21 (0.58)
친구모임	1.88 (1.09)	1.42 (0.93)	0.29 (0.68)	0.25 (0.62)

중년 여성들은 모임에서는 부정적인 특성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표현하였으나, 여성모임과 친구들 모임에서는 남녀 대중모임에서 보다 남성 긍정적인 반응이 유의하게 많았다($t=-3.75, p<.001$). 이러한 반응을 현재의 일반적 자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모임에서 여성 긍정적 특성이 평소보다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t=-3.09, p<.001$; $t=-4.56, p<.001$; $t=-3.80, p<.001$). 중년 여성들은 남녀 대중모임에서는 평소보다 남성 긍정적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t=-3.05, p<.01$), 여성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는 평소와 차이없이 상관이 높게 남성 긍정적 특성을 표현하였다($r=.504, p<.001$; $r=.377, p<.001$).

이를 항목별로 보았을 때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중년여성들은 남녀의 대중모임에서 적극적이거나 강하지 못했으나, 반면 친구모임에서는 적극적이고 자신있다고 반응하였다. 여성들은 모든 모임에서 부드러웠고, 여성적이었으나, 남녀 대중모임에서 여성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한편 까다로운 특성은 많은 사람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남녀대중모임에서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4.66%로,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남녀가 함께 모이는 대중모임에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을 더 드러내고 남성 고정형적인 특성은 덜 드러내는데 비해, 친구 모임에서는 남성 고정형적인 특성을 더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임에서의 자아지각 (%)

	적극적인	자신 있는	강한	부드러운	여성적인	까다로운
남녀 모임	20.55	53.42	32.88	79.45	79.45	24.66
여성 모임	50.00	66.67	52.78	75.00	66.67	9.72
친구 모임	60.56	73.24	45.07	74.65	67.61	12.68

3.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각

어릴 때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지적했으나, 현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저하게 그러한 특성이 줄어든 것으로 지각되었다($t=3.79, p<.001$; $t=4.41, p<.001$). 반면 여성 긍정적인 특성은 어릴 때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졌다고 지각된 것이 현재에도 상관되게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r=4.01, p<.001$; $r=.609, p<.001$). 한편 어릴때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남성부정적인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냈던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지적되었다($t=2.85, p<.01$). 즉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는 적극적이고 강했지만, 노년기에 들어선 부모님은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변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어머니 노릇을 하는 자신과 어릴 때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비교해 보므로써, 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어릴 때 경험한 어머니를 얼마나 동일시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Rosenberg, 1997). 각 특성에서, 어릴 때의 어머니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상관을 보면, 남성 긍정적 특성과 남성 부정적 특성, 여성 긍정적 특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여성 부정적인 특성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r=.408, p<.001$). 즉 약하고 힘없는 특성만 어머니와 유사할 뿐 중년 여성들은 어머니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어

표 5.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본인에 대해 지각된 특성평균과 표준편차

	남성긍정	여성긍정	남성부정	여성부정
어릴때의 어머니	1.76 (1.14)	1.64 (0.97)	0.57 (0.83)	0.70 (0.86)
현재의 어머니	1.19 (1.22)	1.72 (0.95)	0.43 (0.63)	0.97 (0.92)
어릴때의 아버지	1.89 (1.15)	1.27 (1.06)	0.85 (1.04)	0.56 (0.60)
현재의 아버지	1.15 (1.15)	1.23 (1.09)	0.53 (0.77)	0.83 (0.87)
어머니로 서의 나	2.31 (0.77)	1.83 (0.83)	0.32 (0.56)	0.47 (0.65)

머니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더 긍정적이며, 부정적 특성이 덜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특히 어머니보다 자신이 남성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가지고 있고($t=-3.02, p<.01$), 남성 부정적인 특성은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t=2.24, p<.05$).

표 6.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어릴 때의 어머니의 특성 비교 (%)

	적극적인 자신있는 어머니	강한 인 나	여성적인 어머니	민감한 어머니
어머니	89.86	81.16	84.06	65.22
어릴때 어머니	63.01	61.64	61.64	41.10

특히 표 6에서 보듯이,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적극적이고, 자신있고, 강하고 민감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이, 어릴때의 어머니가 그랬다고 회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한편 어릴때의 어머니는 여성적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71.23%였으나, 자신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여성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6.52%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요즈음의 중년여성들의 가족내의 역할이 어머니노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 어릴 때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바람직하지 않은 자아의 비교

중년여성들이 느끼는 어릴 때의 자아와, 현재의 일반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특성은 부정적인 특성 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이 유의미하게 많았다($t=-8.34, p<.001$; $t=-9.79, p<.001$; $t=-21.83, p<.001$).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자아의 특성은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현재의 일반적인 자아경험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36, p>.05$), 어렸을 때에는 여성적 특성이 남성적 특성보다 많았다고 지적되었고($t=2.11, p<.05$), 이상적인 자아로는 남성적인 특성이 유의미하게 많이 지적되었고($t=-5.42, p<.01$) 특히 남성긍정적 특성이 많이 지적되었다. 즉 중년

표 7. 어릴때와 현재의 자아, 이상적인 자아와 바람직하지 않은 자아의 특성 평균과 표준편차()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t
유년자아	3.12 (1.59)	1.36 (1.30)	-8.34***
현재자아	3.61 (1.58)	1.24 (1.33)	-9.79***
이상자아	3.92 (1.35)	0.31 (0.64)	-21.83***
싫은자아	1.58 (1.73)	1.79 (1.76)	0.71

* $p<.05$, ** $p<.01$, *** $p<.001$

	남성적특성	여성적특성	t
유년자아	1.98 (1.63)	2.50 (1.45)	2.11*
현재자아	2.28 (1.38)	2.57 (1.36)	1.35
이상자아	2.54 (1.11)	1.69 (0.95)	-5.42***
싫은자아	1.53 (1.45)	1.85 (1.34)	1.96

* $p<.05$, ** $p<.01$, *** $p<.001$

	남성긍정	여성긍정	남성부정	여성부정
유년자아	1.46 (1.27)	1.66 (0.94)	0.53 (0.74)	0.84 (0.86)
현재자아	1.74 (1.11)	1.86 (0.91)	0.54 (0.83)	0.70 (0.79)
이상자아	2.32 (0.97)	1.59 (0.84)	0.22 (0.50)	0.09 (0.38)
싫은자아	0.72 (1.08)	0.86 (0.86)	0.81 (0.97)	0.99 (1.04)

여성들은 어렸을 때에는 여성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현재에는 여성적 특성 뿐 아니라 남성적 특성을 비슷한 비율로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특성은 남성 긍정적인 특성임을 시사한다.

어릴 때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제외한 남성부정($r=.35$, $p<.01$), 여성긍정($r=.62$, $p<.01$), 여성부정적인 특성들은($r=.35$, $p<.01$) 상관이 모두 매우 높았으나, 남성 긍정적인 특성은 상관이 없었다. 남성 부정적 특성과 여성 부정적 특성은 미숙한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고, 중년기에 그런 특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릴 때에 가졌던 특성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긍정적 특성이 어릴 때와 현재의 자아간에 상관이 높은 것은 유년기부터 사회의 성역할 기대를 배우면서, 여성적인 특성을 길러 왔음을 시사받는다. 반면 남성 긍정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성숙한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어릴 때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여성들의 자아에 대한 지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반응율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년여성들은 자신의 현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독립적인'(71.6%), '부드러운'(70.3%), '여성적인'(68.9%), '민감한'(64.86%) 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부정적인 특성들 가운데 '까다로운'(46.38%)과 '약한'(45.95%), 그리고 '이기적인'(31.08%)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자신의 싫은 모습으로는

'까다로운'(46.58%), '민감한'(42.47%), '이기적인'(42.47%), '약한'(40.47%)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했다.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부드러운'(90.54%)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적극적인'(87.84%), '자신있는'(77.02%), '여성적인'(74.32%), '강한'(70.27%), '독립적인'(70.27%)을 들었다.

어릴때의 특성은 '여성적인'(72.97%), '부드러운'(62.57%), '민감한'(62.16%) 특성이 많았으나, 현재와 비교했을 때 강하지 못하고, 힘 없고, 약하며,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지각되었다.

논 의

이상의 결과들을 몇 가지 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경험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여성 긍정적인 특성이고, 그중에서도 '부드러운'과 '여성적인' 특성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났다. 즉 여성적인 특성들 가운데서도 한국의 중년여성들은 '부드러운'과 '여성다운'을 가장 바람직한 특성으로 추구할 뿐 아니라 가장 많이 드러내는 전형적인 특성(prototype)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여성적인'의 개념은 고정형적인 여성적인 모든 특성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긍정적인 특성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자신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특성들을 보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지각한 것으로 보인다. Spence와 Buckner(1995)에 따르면, 사실상 '여성적인', '남성적인'이란 개념적 정의는 분명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사람들은 자신이 여성,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적'이고, '남성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년여성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와 있을 때와 친구와 있을 때에는 여성적인 특성보다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더 드러내고 있었으며, 시

덕 어른들과 있을 때에는 여성적인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내었다. 이는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서 자아경험이 다름을 지적한다. 시대의 문화조건이 가장 성역할을 강조하는 조건이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성역할 중심적은 아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성 긍정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머니역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이기 보다는 남성적 특성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 두 역할간의 차이는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사회적인 기대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보다 자녀와 친구,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상대적으로 더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남성들이 성역할의 구조자인 동시에 성역할을 부추긴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친구는 성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럽고 마음편한 상대일 수 있다. 여성에게 가장 위협이 없는 인간관계가 여성들간의 관계라는 여성학자들의 주장은 여성들이 이 관계에서 성역할의 기대를 받지 않고 자신있고 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어머니에게는 ‘동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자녀에게는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각 개인이 다양한 자아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아특성이 함께 있는 타인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역할에 따라 다르게 표출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성격의 표현이 역할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는 Sheldon, Ryan, Rawsthorne, 및 Hardi(1997)의 주장을 지지한다.

세째, 어머니로서의 자기지각은 자신의 어렸을 때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된 지각보다 남성 긍정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몇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신에게는 남보다 후한 평가를 하는 경향성을 드러낸 지각자 자기편향적 평가 결과일 수 있다. 즉 자신을 적어도 어머니보다는 강하

고 적극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험자들에게 사후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은 각 반응을 하면서, 이 질문지가 무엇을 비교하려고 의도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자녀와 함께 있을 때의 특성과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체크해 나갔다고 답했다. 둘째로, 이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어머니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가족크기가 축소되고, 가사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은 어머니 노릇이 되었고, 자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모성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중년 여성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르기 때문에, 오늘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강하고 자신있고, 적극적일 수 있다.

네째, 남녀 모임에서 여성들은 남성 긍정적 특성보다는 여성 긍정적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드러내었고, 여성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는 여성적 특성보다 남성적 특성을 더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년여성들에게 여성적 특성이 불편하는 특성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능한 모습 중에서 환경과 맥락이 요구하는 자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녀 대중모임이라는 익숙치 않은 사회적 조건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맥락이 요구하는 요구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특성은 여성적인 특성임을 시사받는다. 반면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는 남성 긍정적 특성이 많이 표현되었다. 즉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억압적이지 않으며, 특별한 성역할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성긍정적인 특성을 표현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중년여성들은 어릴 때에는 여성적 특성을 유의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지각했으나, 현재에는 자신이 여성적 특성뿐 아니라 남성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했다. 그러나 이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남성 긍정적 특성이 많았다. 이

는 Jung의 이론을 지지한다. 즉 어릴 때에는 사회화 과정에서 길러진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었지만, 중년기에 이르러 점차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이상적인 특성으로 추구하면서, 양성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여성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으로 부정적인 특성 뿐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을 많지는 않지만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적인 특성 중에는 '민감한'(42.47%), '동정적인'(21.92%)이 지적되었고, 남성적인 특성 가운데 '독립적인' (24.66), '적극적인'(20.55%), '자신있는'(21.92%), '강한'(23.29%) 특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싫은 모습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반응을 보인 여성들의 가치관의 혼란이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이상적인 특성으로 위의 특성들을 지적하고도 또한 싫은 특성으로 다시 지적했다. 이는 사회가 여성을 보는 이중적 시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적인 특성을 가질 때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남성적인 특성들을 나타낼 때 사회는 여성답지 못하다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원 행렬표를 사용하여, 중년여성들이 상황과, 함께 있는 타인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를 경험함을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2원 행렬표를 얻어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2원 행렬표를 사용하므로써, 피험자들이 자신의 반응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반응을 조절했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후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피험자들은 각 칸의 반응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반응들을 대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컴퓨터 보조 방법을 통한 HICLAS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DeBoeck & Rosenberg,

198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만을 피험자로 했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하여 중년 여성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를 경험하고 있음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보편적으로는 여성 긍정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황이 어떤 역할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남성 긍정적인 특성을 각기 다르게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중년 여성들이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고정형적인 틀에 묶여서, 자신의 자아를 구성해 왔지만,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는 이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과, 이를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친구들이나 자식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황과 역할 변인을 좀더 세분하고 특성변인을 확장하여 여성들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에 따라 어떤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조궁호(1995). 문화와 인지: 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서울: 한국 심리학회.
- 최효일(1998). 고부 갈등완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제3권 1호.
- Ashmore, R.(1990). Sex, gender, and the individual. In L.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 488-526). NY: Guilford.
- Ashmore, R. & Ogilvie, D.(1992). He's such a nice boy...When he's with grandma: Gender and evaluation in self-with-other

- representations. In T. Brinthaupt & R. Lipka(Eds.). *The Self: De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236-290). NY: SUNY Press.
- Callero, P.(1985). Role-identity sali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18-29.
- Chodorow, N.(1987).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 Press.
- DeBoeck, P. & Rosenberg, S.(1988). Hierarchical classes: Model and data analysis. *Psychometrika*, 53, 361-381.
- Dinnerstein, D.(1976). *The Mermaid and the minotaur*. NY: Harper & Row.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ske, S. & Taylor, M.(1991). *Social cognition*. NY: McGraw-Hill.
- Gilligan, C.(1982). 허란주 역. *다른 목소리로. 동넛*.
- Gutman, D. (1977). The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J. Birren & K. Schaie(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Y: Van Nostrand Reinhold.
- Markus, H.(1983). Self knowledge: An expanded view. *Journal of Personality*, 35, 63-78.
- Markus, H. & Cross, S.(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 488-526). NY: Guilford.
- Markus, H. & Kitamaya, S.(1991). Culture and the self.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J. B.(198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Press.
- Miller, J. G.(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Parsons, T.(1955). Sex roles and family structure. In N. Glazer (Ed.)(1977). *Woman in a man-made world*. Chicago: Rand McNally.
- Rosenberg, S.(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pp. 23-4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don, K., Ryan, R., Rawsthorne, L., & Hardi, B.(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 1380-1393.
- Spence, J. & Buckner, C.(1995). Masculinity and Femininity: Defining the undefinable. In P. Kalbfleisch & M. Cody(Eds.). *Gender, power, and communication in human relationships*. NJ: LEA.
- Triandis, H.(1989). The self and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urner, R.(1978). The role and the per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23.
- Weigert, A.(1983). Identity: Its emergence within sociological psychology. *Symbolic Interaction*, 6, 183-206.
- Wiley, M. & Alexander, C.(1987). From situated activity to self-attribution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al schemata. In K. Yardley & T. Honess(Eds.), *Self and identity: Psychological perspectives*. NY: Wiley.
- Williams, J. & Best, D.(1982). *Measuring sex stereotypes: A thirty-nation stud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Self-with-Other Representation of Korean Middle-Aged Women

Hioh-II Choe
Woosuk University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Korean middle-aged women's self-with other by using 2 mode-2 way matrix.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middle-aged women tended to express their feminine-positive characteristics generally. But when they were with their children or their best friends they were more masculine-positive. The results also showed when they were with parents-in-law, father or male-female mixed group, they expressed more sex-role oriente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role expectation and multiplicity model of self.